

분단 70년,

“남과 북이 함께 웃는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.”

기도운동 (6월 1일 ~ 12월 31일)

지향 :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

1. 목주기도 8천만 단(남북 전체 인구수) 바치기

기도방법 - 매일 미사 전,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와 목주기도 1단 바치기

2. 매일 밤 9시 주모경 바치기



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

-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내신 주님,
저희가 모두 주님을 닮게 하소서.
- 사랑으로 하나 되신 주님처럼
저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.
-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,
이 나라 이땅에
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.
- 한 핏줄 한 겨레이면서도 서로 헐뜯고 싸웠던
저희 잘못을 깨우쳐주소서.
-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시고
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소서.
- 인류의 일치를 바라시는 주님,
갈라져 사는 저희 겨레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소서.
- 저희의 무관심을 깨닫게 하시어
겨레의 일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
가진 바를 나누게 하소서.
-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
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하소서.
- 온 겨레가 주님을 믿어
이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.
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
- ◎ 아멘.
- 평화의 모후시여,
-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.
-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이며,
-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.